Weekend p/12
보석보다 에메랄드 그린

메트로 2013년 4월 26일 금요일 제2720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6
대중문화계 '비정규직 코드'

정부 개성공단 중대조치 압박
NEWS p/02

대체휴일법안 처리 일단 무산
NEWS p/03

NEWS p/01

메트로 2013년 4월 26일 금요일 제2720호 www.metroseoul.co.kr

25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갤럭시 S4 월드투어 2013 서울 행사에서 모델들이 머리가 8개 인 옥타코어 칩을 탑재한 갤럭시S4를 선보이고 있다. 갤럭시S4는 26일부터 대리점에서 만날 수 있다. /연합뉴스

"쓸게 무척 많네" 세계 첫 출시 갤럭시S4도 대박예감

현존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갤럭시S4가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25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26일 한국 시장에 가장 먼저 갤럭시S4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갤럭시S4는 5인치 슈퍼아몰레드(AMOLED) 능동형 유기발광 디이오드)를 장착했으며 화면 해상도는 풀HD급(1920×1080화소)이다. 화면 밀도는 441ppi(인치당 화소 수)다.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이 이전보다 커졌지만 두께 7.9㎜, 무게 130g으로 전작 갤럭시S3보다 가볍고 얇아졌다.

화면 앞 유리의 경우 코닝사의 강화 계통 고릴라 글라스3를 선택해 이전보다 내구성이 향상됐다.

동영상을 보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재생을 잠시 멈추는 삼성 스마트 포즈, 스마트폰을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삼성 스마트 스크롤, 센서를 활용한 건강관리 'S헬스' 등 이미 알려진 첨단 기능도 어김 없이 탑재됐다.

아울러 갤럭시S4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통해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한다. 가격은 32GB 기준 89만9000원이며 16·64GB 버전이 나오면 가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박성훈기자 zen@

찔끔 3만원! 반값등록금 결국 쇼

수도권 대학 등록금 760만원 · 내리겠다 외치던 그 사람들 '감감무소식'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만1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여야가 앞다퉈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선거가 끝나자 '헛헛한 공약'이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173개교 주요 공시 내용을 분석해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9000원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율은 사립대 0.47%, 국·공립대 0.19%로 미미했다. 절대 액수는 사립대가 733만9000원으로 국·공립대 409만6000원보다 1.8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0.73%, 비수도권이 0.30%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인하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 등록금은 절대 금액(757만3000원)이 비수도권(621만9000원)과 비교해 140만원가량 높아 체감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을지대 852만1000원, 연세대 850만7000원, 한국항공대 847만6000원, 이화여대 840만6000원, 추계예술대 838만7000원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하율은 0.46%에 그쳐 총·대선을 앞둔 지난해 등록금 인하율(4.3%)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670만9000원)에 비해 3만1000원 인하됐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려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새누리당 공약에 따라 관련 예산을 5250억원 증액한 2조7750억원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장학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연간 67만5000원에 불과해 체감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대선 패배로 반값 등록금 등 정책이 민심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반값 등록금 조항을 삭제한 강령 정책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값 등록금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없다.

국회 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 모두 반값 등록금 예산을 이미 반영했다는 분위기이고, 정부는 올해 이어 기금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올해 반값 등록금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반값 등록금 그 말을 진짜 믿었나" "반값 등록금 공약 내건 정치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유리기자 grace1004@metroseoul.co.kr

자기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서로 사랑했다는 49세 공무원

40대 후반 공무원이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사실이 밝혀졌으나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여중생 B(15)양을 만나 7~15차례 성관계를 하고 2만~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35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인 채 만남을 지속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B양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결혼하고 싶은 오빠 결의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 달라"고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년이 지난 딸을 둔 이혼남으로 "B양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승리기자

뉴스 & 뉴스

1분기 GDP 0.9% 깜짝성장… 경기회복 기대감

●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4분기에 비해 0.9% 성장했다. 기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예상치(0.8%)보다도 높은 수치다. 25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속보치)가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교역 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1.0% 증가했다. 이는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정지우기자

정준양 포스코 회장 "승무원 폭행 부끄럽고 충격적"

●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최근 계열사의 한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그간 쌓아온 국민기업으로서의 포스코의 좋은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25일 포스코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3일 운영회의와 신임 임원 특강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에 대해 충격을 받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나 자신이 먼저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유현정기자

'음주 운전하고도 공무원 아닌척' 지난해 887명

● 안전행정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나 신분을 숨기다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난해 8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누적 횟수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안행부는 공무원이 신분을 은폐하더라도 사후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기자

<개성공단 체류 한국 근로자>

176명 전원철수 유력

정부 "남북실무회담 거부하면 중대조치… 오늘 오전까지 시간주겠다"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17일 만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의 안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 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이 26일 오전까지 당국 간 실무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의에 따라 북한 당국의 태도는 물론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중대한 조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만일 북한이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 인원 전원 철수와 공단 폐쇄 등의 단계로 옮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의 상징성과 천안함 사태 당시에도 유지됐다는 점을 들어 당장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 입주기업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실무 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남북 양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철수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근로자 176명이 남아있으며 이들은 생필품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모처럼 활짝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재소장 등과 함께 어린이들의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위엄 뽐내는 거북선 충무공 이순신 탄생 468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 청계천에서 오방 거북선 경주대회가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거북선을 물에 띄워 경주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신규 아파트에 담장 못세운다

잠실 5단지 등 시범추진

도시 경관과 잘 어울리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지어지는 서울 시내 아파트에는 담장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개념'을 마련하고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담장으로 가로막힌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지역에 개방되고 연계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시에는 기존 도로체계의 연속성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해 용도·규모를 결정할 때는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전제로 진행한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해 법적 시설 중 계층별 필수 시설인 보육시설·작은도서관·경로당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문화센터·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권장 시설로 추가했다.

한편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대단지는 잠실5단지와 가락시영아파트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배동호기자

MB 32억원 빚내 논현동 사저 증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2억원의 빚을 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33명의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배우자의 예금은 9억5084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620만원 늘었다. 그러나 시인간 채무가 26억원, 농협은행 채무가 6억1270만원 증가하면서 전체 재산은 감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총 채무는 2억3600만원에서 34억5070만원으로 32억1270만원 늘었으며 채무 목적은 사저 증축으로 조사됐다.

사저의 집값은 35억8000만원에서 증축 후 54억6847만원으로 18억6847만원이나 뛰었다. /김정환기자

17개월 아기 등에 '피멍'

어린이집 여교사 2명 '징징댄다'고 마구 때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 2명이 17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씨, 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화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도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욕설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김현정기자

청소년 바른 손글씨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청소년들의 개성과 감성을 엿보는 '청소년 바른 손글씨 공모전'을 개최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www.youthexpo.net)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청소년현장'을 손글씨로 표현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상금 30만원이, 그 외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강연하는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서울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구청소식

보건소장협 창립 총회 개최

서울 동작구는 30일 종로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창립 총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초대 회장은 권선진 동작구보건소장이 맡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254명의 전국 보건소장과 정부·관계 기관 초청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전국 보건소장들의 모임으로 이번에 공식 출범하게 됐다.

쓰레기 감소 아이디어 공모

서울 노원구는 구민 대상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30일까지 구 홈페이지(www.nowon.kr)를 통해 제안하면 4명을 뽑아 6월 말 금상(1명) 200만원 등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노원구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연간 처리 비용은 38억원을 웃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1960년 4월 26일. 3·15부정선거로 4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과 함께 폭발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항복해 결국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선거를 다시 하겠으며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로써 1948년 건국 이래 12년 동안 철기 집권한 그는 다음날 대통령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사흘 후 국민의 야유 속 이화장으로 떠났다.

꽃밭의 꽃 25일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이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일산 호수공원 행사장을 찾은 여성들이 노랗게 막 피어난 튤립을 감상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체휴일안 처리 유보

당정간·여야간 이견… 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 하기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재계의 강력 반발에 이어 이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안행위에 출석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특히 유 장관은 "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2011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댔다 반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유승우 의원은 "모든 정책은 한번 정하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효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거들었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여야는 그때 가서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호기자 e-seen@metroseoul.co.kr

metro France

'다이어트 포크' 곧 출시

식사를 빨리할수록 살이 찌게 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이런 '위험'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다이어트 포크'가 전 세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포크는 프랑스 엔지니어 지크 르관이 개발했다.

사용자가 음식을 빨리 먹을 경우 진동으로 경고하는 것은 물론 식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계산해 저장한다.

조만간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100유로(약 14만 7000원)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로랑스 살드로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멕시코 시골학교 '10페소의 기적'

metro Mexico

교사들 자체급식 도입 영양실조 학생들 완치

6개월 만에 영양실조에 걸린 학생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준 멕시코 시골 학교의 '학교 냄비 프로젝트'가 화제다.

게레로 지방 틸라파시의 시골 마을에 있는 이 학교는 스무 명 남짓한 학생들이 다니는 분교다.

그동안 이곳 학생들은 하루에 10~15페소(약 900~1400원)를 쓰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사서 끼니를 해결했다. 그러나 3년 전 이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판단, 교사들이 '학교 냄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교 냄비 프로젝트는 학생 한 명에게 하루에 10페소씩 걷어 자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걷은 돈으로 마을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달걀, 콩, 나물 등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구입했고, 학생들은 당번을 정해서 요리를 했다.

당시 학생들은 비타민, 칼슘, 철분, 섬유질 부족으로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더불어 학교 측은 교내에 정수기와 난로를 설치하는 등 시설도 정비했다.

학교 냄비 프로젝트로 영양 상태가 호전되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한 환경연구단체 관계자는 "학교 냄비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라 콩가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운동화 주인은 어디에 24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시 코플리 광장에 마련된 보스턴마라톤 희생자 공식 추모소에 운동화들이 걸려있다. /AP 연합뉴스

女 교도관들 임신시키고… 마리화나 밀반입 장사까지…

구치소 접수한 조폭 두목

미국 폭력조직 두목이 여성 교도관들과 성관계를 맺고, 물건을 밀반입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구치소를 휘젓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24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볼티모어 구치소에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된 갱단 '블랙 게릴라 패밀리(BGF)'의 두목 태번 화이트는 여성 교도관 4명과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시켰다.

평소 화이트는 볼티모어 구치소 내 전화기를 통해 외부와 통화하면서 "이긴 내가 접수했어. 여기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해"라고 비젓이 자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교도관 중 2명은 화이트의 이름을 각각 목과 손목에 문신으로 새겨넣기도 했다. 또 화이트는 여성 교도관 3명에게 자동차와 다이아 반지 등 값비싼 물품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검사 로드 로젠스타인은 여성 교도관 13명과 갱단 조직원 등 25명을 공갈과 돈세탁,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교도관들은 BGF 조직원들이 휴대전화와 마리화나, 의약품과 담배 등을 감옥으로 들여와 수감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도록 도운 혐의다. 교도관들은 속옷이나 신발 속에 물건을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출입 시 소지품 검사에서 빠져나갔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목 화이트는 구치소 안 밀수품 거래로 한 달에 1만6000달러(약 1770만원)를 벌어들였다.

BGF는 196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돼 마약 거래와 강도 등을 저지르며 미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간 폭력조직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paldo30

팔도 30 주년

바람과 초원의 나라 몽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상 팔도제품 애용하는 모든 고객

기간 2013년 3월 ~ 7월까지 (몽골여행 8월말)

경품 몽골여행 (총 130명), 팔도라면 전용샤각냄비 (30,000명) 등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www paldofood co kr / 이벤트 문의 1661-4247

EVENT 1

구매영수증 입력하고 몽골가자!

100명

팔도 제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에 적힌 구매처와 구매날짜를 입력하세요.

EVENT 2

사연 및 인증샷 올리고 몽골가자!

30명

팔도와 관련된 색다른 에피소드를 사연이나 인증샷으로 응모하세요.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코스닥
1951.60 (+16.26)	558.40 (-4.41)

금리	환율
2.56% (-0.05)	1111.00 (-6.00)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상호금융·할부금융사·보험사·카드사·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에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 명, 연대보증액만 75조여 원에 달한다. /김희정기자 lucyhan@

팬택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 공식 출시

베가 아이언이 26일 공식 출시된다.

팬택은 세계 최초 '엔드리스 메탈'을 구현한 LTE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을 이날 본격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출고가는 같은 날 시판되는 갤럭시S4보다 7만여 원 낮은 82만9400원이다.

베가 아이언은 삼성과 애플이 적용하지 못한 전면 금속 테두리를 최고 강점으로 내세운다. 금속 안테나 기술로 통화품질은 물론 견고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이다. 5인치 액정과 2mm대 최소 베젤로 세계 최고 풀스크린 화면 비율도 자랑한다.

한편 팬택은 베가 아이언 출시를 기념해 제품 구입자에게 고급 플립커버를 한정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바이오주도 '건강진단'이 필요해

최근 알엔엘바이오·셀트리온 사태에 투자자 패닉
전문가들 "가시적 성과·실적 확인된 기업 선택을"

꿈의 바이오주 투자자들은 최근 알엔엘바이오와 셀트리온 사태에 업종 전반의 주가가 흔들거리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라고 조언하면서도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잘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 매매 사흘째에 돌입한 알엔엘바이오의 주가는 16.06% 빠졌다. 라정찬 회장의 공개 매수 발언에 전날 35% 가까이 상승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내렸다. 정리 매매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직전 이틀간 회복세를 보이던 주가가 다시 소폭 하락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앞서 나흘간(17~22일) 급락으로 시총 2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가 겨우 3조원대로 회복된 상태다.

하지만 바이오 투자자들은 과거 황우석 사태 당시의 폭락 사태까지 떠올리며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한다. 그동안 딱히 검증된 연구 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약 기대감에 무리하게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현 바이오 시장은 과거와 달리 실제적인 성장성과 체질이 달라졌다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손휘창 현대증권 연구원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기업, 특허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바이오 업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양행·녹십자·한미약품·셀트리온·LG생명과학·차바이오앤·메디톡스 등을 시총 1000억원 이상, 지난해 매출액 100억원 및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상장사로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로 꼽았다.

/김현정기자 hjk.m@metroseoul.co.kr

"가방으로 스타일 살려요" 투미의 디퓨전 브랜드인 티텍바이투미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국내 공식 론칭을 선언하고 비즈니스, 여행, 데이백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中 대하드라마 '삼국지' DVD로

현대 H몰 통해 한정 판매

중국 역사 대작 드라마 '삼국지'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

엔터미디어는 총 95부작인 대하드라마 '삼국지'를 한정 특별판 DVD로 제작해 현대홈쇼핑 H몰(www.hmall.com)을 통해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에서 15년 만에 새롭게 제작된 '삼국지'는 총 제작비 1억6000만 위안(약 250억원) 투입, 주요 출연진만 300여 명에 이르는 대작 드라마다. 2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10년 5월 중국 24개 주요 도시에서 방영 당시 상반기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대상과 남우주연상을 휩쓸었으며 아시아TV어워즈를 포함 20여 개의 상을 수상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삼국지 DVD에는 정교하고 화려한 세트, 의상, 소품, 특수 효과 등으로 완벽 재현된 시대 배경과 생생하게 묘사된 거대한 스케일의 전투 장면과 같은 볼거리가 담겨 있다. 중국 삼국시대 시기의 정치적 군사적 투쟁과 각 사회 모순의 변화 과정, 혼란의 시기에 단생한 영웅호걸들의 지혜와 통찰력도 엿볼 수 있다. /하국영기자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

자동이체 신청하면 경품이 팡팡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자동이체로 쉽고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 멋진 선물까지 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신청 경품 행사

대상

• 2013년 4월 11일 ~ 2013년 7월 10일 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세대 또는 사업장

*카드자동이체 제외

자동이체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유선 신청 ☎ 1577-1000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 nhis or kr)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http //si4n nhis or kr) 링크
- 지로 홈페이지 (http //www giro or 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 //www.4insure or kr)

행사 기간

2013년 4월 11일 부터 2013년 7월 10일 까지

경품안내

당첨 안내

• 당첨자 발표: 2013년 8월 6일(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 nhis.or kr) 및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http //si4n nhis or kr) 홈페이지에 팝업게시 안내

"게임도 '스토리+텔링' 중요"

네온스튜디오 박범진 실장 NDC 강연 내용 눈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네온스튜디오 박범진(사진) 실장이 "게임의 스토리란 과연 포르노의 줄거리에 불과한가"란 파격적인 주제의 강연에서 스토리텔링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25일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 마지막 날 강연이 그 무대였다. 넥슨이 2007년부터 진행하는 NDC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게임 개발자 행사다.

박 실장은 "똑같은 액션 영화라도 스토리가 좋으면 흥행은 물론 명작의 반열에 오른다"면서 "이는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유명 게임개발자 존 카맥의 '게임 스토리는 포르노와 같다. 있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란 말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게임에서 스토리와 텔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의 최대 흥행작인 '이코'는 한 소년이 성에 갇힌 소녀를 구하기 위해 손을 잡아 탈출한다는 스토리를 지닌다.

이 게임은 사용자가 손잡기 버튼을 누르는 내내 주인공의 심장박동이 패드로 전달된다는 '텔링'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장윤희기자 unique@

뉴스 & 뉴스

스마트폰 꾸미는데 1인당 연 4만2000원 소비

●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데 한 해 평균 4만2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스마트폰 이용자 1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스의 평균 구매 가격은 2만2048원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이용자(2만5250원)가 안드로이드 단말기 이용자(2만403원)에 비해 약 4800원 더 비싼 케이스를 구매했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매해 교체하기까지 케이스는 평균 2.4회, 액정보호필름은 평균 2.5회 구매했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외 편집인 김광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국장 직대 김일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9-2100
독자센터 02)721-9892

차보험 재가입률 69%

●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한 해 사이 보험사를 바꿨다. 자동차보험이 생활필수품화돼 가격 민감도가 높고 보험사에 대한 로열티는 약해진 것. 25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재가입률이 69.0%라고 밝혔다. 보험료가 높은 조건의 가입자일수록, 대도시 가입자일수록 재가입률이 낮았다. /김지성기자

제작비 5만원 영화의 쾌거

'제3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 만장일치 대상 받은 김찬년 감독

단돈 5만원으로 제작한 영화로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주인공은 지난 20일 폐막한 '제3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KT 주최)에서 화제를 모은 김찬년(25) 감독.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를 휴학 중인 김 감독의 작품 '24개월 후'는 총 730편 출품작 중에서 예심을 통과한 25개 본선 진출작 가운데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 작품은 24개를 약정 피처폰을 사용하는 남자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이 지배한 세상 속에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9분 59초의 짧은 시간동안 재기발랄하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작에 뽑혔다.

제3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찬년(왼쪽) 감독과 심사위원장 봉준호 감독 /KT 제공

김 감독은 "5만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완성한 이 영화가 영화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4개월 후'를 비롯한 경쟁부문 수상작들은 영화제 홈페이지(www.ollehfilmfestival.com)와 올레닷컴(www.olleh.com) 등에서 다음달 19일까지 볼 수 있다.

한편 KT는 스마트폰 영화 제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영상아카데미'(ollehstudio.kt.com)를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배출한 스타 감독들이 스마트폰 영상의 기초 개념부터 실습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영화 매니아는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참가 비용은 무료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카페베네 무료커피 4만잔 쐈다 25일 서울 청담동 카페베네 매장 앞에 공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카페베네는 론칭 5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후 5시부터 전국 800개 매장에서 선착순 50잔씩, 총 4만 잔의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미디엄 로스팅 커피도 선보였다. /박지원기자

우체국도 알뜰폰 판다

우체국에서도 알뜰폰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에서 저렴한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알뜰폰(MVNO)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탁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25일 "유통망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들에 전국 3600여개의 우체국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가입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편의점들이 알뜰폰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본은 수탁 판매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알뜰폰은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상생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zen@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암보험, 사망보험
이제 따로 가입 마시고
한번에 보장
받으세요!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1304 [L2100]

암 진단비 2천만원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계약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기타 피부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상해 · 질병사망 2천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장 전문등반, 자동차오토바이경기로 인한 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조
질병사망시 지급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 및 화상진단 의료비용 1천 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진단 · 수술 · 화상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기본계약 (1만원 단위: 원)			선택계약										
골절진단·수술의료비·화상진단의료비			암 진단비			상해사망		질병사망		합산 보험료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15~89세	13,230		30세	1,440	4,340	1,394	634	680	480	30세	16,744	18,684
			40세	4,060	9,760			2,180	1,100	40세	20,864	24,724
			50세	9,800	11,220			6,000	2,580	50세	30,424	27,664

1. 가입연령: 15~89세 2. 납입기간: 전기납 3. 보험료는 상해급수 1급 기준이며 성별 · 연령별로 상이 4.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음 5. 5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연령증가 및 위험률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골절진단 · 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은 최대 90세까지 (암 진단비, 질병 · 상해 사망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1577-6428

걱정되는 치매에 목돈드는 암도!
75세 우리 부모님도
보험가입 된다고요?

치매간병비 3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시청각질환 수술비 50만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암 진단비 2백만원(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명품부모님보험 [2K013]

기본계약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 (중증치매)			시청각질환 수술비		암 진단비		합산 보험료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50~75세	11,530		50세	420	1,650	190	210	2,000	2,470	50세	14,360	15,860
			60세	3,380	8,020	400	510	4,100	3,010	60세	19,410	23,070
			70세	19,690	40,020	960	1,290	7,220	3,530	70세	39,400	56,370

1. 가입연령: 50~75세 2. 납입기간: 전기납 3. 보험료는 상해 1급 기준이며 성별 · 연령별 · 직업별로 상이 4.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5. 이 상품은 3년 만기 자기갱신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시청각질환 수술비, 암 진단비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577-6427

• 청약철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시 가입후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보험계약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또는 신용카드 계약 청보고지 후부터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 기보험 해지 후 신규가입 시 가입 제한,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상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세 보장내용은 약관 및 청약서를 참조 www.aig.co.kr

AIG
더 좋은 내일

냉장고계 '괴물' 출현

6도어 디자인 첫 구현한 위니아만도 '프라우드'
920ℓ 세계 최대 용량에 냉장·냉동 기능 전환도
삼성·LG 아성에 도전장

모두 6개의 문, 세계 최대 용량(915~920ℓ), 냉장·냉동 기능 전환….

위니아만도가 만든 첫 프리미엄 냉장고가 공개됐다. 위니아만도는 25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6도어 냉장고 '프라우드(PRAUD)'를 선보이며 삼성·LG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냉장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위니아 에어컨과 딤채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위니아만도는 지금까지 에어워셔, 제습기, 이온정수기 등을 출시해왔으며 대용량 냉장고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위니아만도는 기존에 없던 스타일과 용량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딤채를 만들며 쌓아온 냉각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저장실을 필요에 따라 냉장·냉동·특냉·생동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상단 우측에 있는 냉장실은 별도로 2개의 듀얼 에코 스페이스 문이 달렸는데 자주 꺼내는 반찬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을 보관하도록 했다.

저장소는 상단의 냉장실 2칸과 1칸의 프레시 D존, 하단의 냉동실 2칸 등 총 5개가 있는데 모두 독립된 전용 냉각기를 장착했다. 특히 프레시 D존은 김치냉장고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 김치·채소·과일 등을 보관하기에 적당하다. 용량은 915ℓ, 920ℓ가 있으며 출시 가격은 350만~550만원이다.

시진작가 김중만씨가 냉장고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라인 메탈 소재를 전면에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노렸다. 배우 다니엘 헤니가 광고 모델로 활동한다.

위니아만도 박완식 대표는 "올해 프라우드 5만 대를 판매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해외 매출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며 "친건강·친환경 콘셉트의 가전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문가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위니아만도 박완식(왼쪽) 대표이사와 배우 다니엘 헤니가 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프리미엄 냉장고 '프라우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럽서 온 무연담배 '스누스' 간접흡연 눈치 '후~' 날려요

29일부터 국내서도 판매

연기 걱정 없는 무연담배 '스누스'가 국내에 상륙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누스맨(www.snusman.co.kr)은 덴마크 'V2 타바코'사와 독점 계약을 통해 오프로드·팬텀·썬더 등으로 구성된 스누스를 29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누스는 200년 전 북유럽에서 시작된 일종의 씹는 담배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면서 일산화탄소나 타르를 배출하는 연기가 없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담배'로 불린다.

스누스의 사용 방법은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워 넣고 30분~1시간 정도 있다가 빼내면 끝이다. 씹거나 삼킬 필요가 전혀 없다.

스누스를 통해 전달된 니코틴은 30분~1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흡연 욕구 또한 충분히 충족시킨다. 이런 이유로 스누스는 이미 유럽 전역에 이어 미국 시장에 진출,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스누스는 전국 판매처와 전문매장 1호점, 2호점인 부천점과 인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오프로드·팬텀은 7300원, 썬더는 7800원, 오프로드 미니 8000원. 문의:02)782-5765

/박국환기자

면세·할인·쿠폰…3번 아끼는 쇼핑천국

롯데면세점 세일 '손짓'

6월 13일까지 전 지점에서 패션70%·화장품30% 할인 예비부부엔 VIP카드 발급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이 향수·화장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이 봄 여행철을 맞아 6월 13일까지 전 지점에서 '더 롯데 세일'을 진행한다. 이 기간 가방·의류 등은 최대 70%, 향수·화장품은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푸짐한 경품도 나눠준다.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VIP 카드를 바로 발급해준다.

◆가방·의류 최대 70% 할인

본점·잠실점에서는 이르미니를 최대 70%, 본점·잠실점·코엑스점·부산점·인천공항점에서는 폴스미스를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인천공항점에서는 향수·화장품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선보이는 단독 행사를 펼친다. 페라가모·엔나수이·오휘·숨·후·빌리프 등로 랑콤·클라란스·입생로랑·보스 등 지난 한 해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포공항점은 정관장·건보·롯데헬스원 등 건강식품을 5개 이상 구매할 경우 10%, 3개 이상 구매 시 5% 할인한다.

◆롯데면세점 단독 화장품 기획전

단골 고객을 위해 화장품 전용 세트를 제작하고 추가로 시슨품을 증정하는 화장품 기획전도 마련했다.

후의 기앤진 크림 50㎖와 비첩 자생 에센스 20㎖를 묶어 128달러에 선보이고, 기앤진 스킨·로션·아이크림을 선물로 준다. 숨은 인기 상품인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 80㎖ 제품에 40㎖ 제품을 함께 묶어 75달러에 판매하고, 추가로 타임에너지 스킨·로션·크림·에센스 구매정품을 증정한다.

◆예비부부에게 VIP 카드 발급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롯데면세점 VIP 카드를 발급해준다. 청첩장·여권·항공권을 소지하고 롯데면세점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본점·잠실점·코엑스점·부산점·제주점을 방문하는 커플에겐 선불카드 1만원을 축의금으로 지급한다.

인터넷 면세점에서도 행사를 벌인다. 로그인을 하면 적립금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구매 금액대별로 10%까지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

◆1달러로 제주 휴양여행 기회

이벤트도 풍성하다. 전 점에서 화장품을 1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10명을 추첨해 제주도 고급 휴양지 아트빌라스의 무료 2박 숙박권과 왕복항공권을 경품으로 준다. 잠실점·코엑스점은 롯데카드로 12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오페라 리골레토 티켓을 선착순으로 1인 2매 증정한다.

본점·잠실점·코엑스점에서는 신한카드로 500달러 이상 결제하면 금액별로 스마트 선불카드를 증정한다. 500달러 이상은 7만원, 1000달러 이상은 13만원, 2000달러 이상은 25만원이다. /박지원기자

오션월드 내일 야외개장

사전예매 40% 할인 혜택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가 27일 국내 워터파크 중 올해 처음으로 야외기장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시에 수도권 무료 셔틀버스·기간 한정 온라인 특가 프로모션·시즌권 판매 등을 진행하고 여름에 앞서 본격적인 고객 유치에 나선다.

최대 4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온라인 특가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달 31일까지 홈페이지(www.vivaldipark.com)에서 입장권을 사전 예매하면 된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음달 4~5일에는 유료 입장 성인 2인과 동반한 미취학 아동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조건의 초등학생은 1만원에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각 1일당 선착순 1000명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며 일행당 최대 3인까지 가능하다. 단체 고객은 제외된다.

내년 4월 13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시즌권은 홈페이지에서 7월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문의 1588-4888 /김보람기자

동물실험반대 서명하면 더바디샵 20% 할인권 증정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더바디샵이 24일 강남점에서 배우 윤승아(가운데)와 함께 동물실험 반대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25일까지 전국 더바디샵 매장 또는 홈페이지(www.thebodyshop.co.kr)에서 서명에 참여하면 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더바디샵은 업계 최초로 화장품에 대한 인도적 기준에 가입했으며 비동물실험 인증 마크인 '리핑 버니'를 획득했다. /김보람기자

백지영과 함께 '냄새나는 콘서트2' 즐겨요

英 수제화장품브랜드 러쉬 내일 오후 7시 잠실 체육관

영국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27일 오후 7시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냄새나는 콘서트2'를 진행한다.

'해브 어 펀 데이!'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아이유·그룹 인피니트를 비롯해 가수 백지영·울랄라세션·에일리·디렉스 등 실력파 뮤지션이 대거 출연한다.

무공해 동심 놀이터 '펀 파크'를 비롯해 영국에서 온 러쉬 셰프와 함께 러쉬 제품을 만들어보는 '신선한 키친', 훈남 테라피스트들과 함께하는 '신제품 컴포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러쉬코리아 담당자는 "브랜드 색깔만큼이나 특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콘서트를 마음껏 즐기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람기자

'한돈 다이어트' 참가자 모집

우리 돼지고기로 다이어트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제피트니스전문가협회와 함께 '한돈 다이어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터를 모집한다.

고단백 한돈 클린 부위 식단을 섭취하면서 정기적인 운동을 병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이어트 효과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체지방률 30% 이상의 20대 여성이 대상이다. 오는 5월 3일 오후 5시까지 한돈닷컴(www.han-do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명은 5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주 3회, 1회당 50분 동안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운동 지도를 받게 된다. 식단 프로그램과 한돈 안심 부위, 피트니스 이용권, 건강검진, 건강 관련 체력 측정 등도 지원받는다. /탄효순기자

보석보다 '에메랄드 그린'

글로벌 색채기업 팬톤 컬러연구소가 지난해 말 '올해의 색'으로 에메랄드 그린을 선정했을 때만 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았다. 익숙하지만 튀는 빛깔이라 생활 속에 녹아들기 힘들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팬톤 컬러연구소 측은 "균형미와 안정감을 지닌 에메랄드빛이 패션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시장까지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올봄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올 트렌드 컬러 '초록색' 향연
흔하면서도 화려한 '힐링컬러'
무채색과 코디하면 부담 적어

가장 발 빠르게 반응한 분야는 패션이다. 루이비통은 2013 봄·여름 컬렉션에서 그린 컬러 격자무늬 원피스와 핸드백으로 눈길을 사로잡았고, 셀린은 2013 가을·겨울 컬렉션에 에메랄드 보석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상의를 선보여 초록빛 흐름을 주도했다.

모노·브라운 컬러가 주를 이루던 아이웨어 업계에도 그린이 등장했다. 메이크업 브랜드 헷지핏은 최근 신제품 '킬링 스윙 마스카라'의 대표 색을 에메랄드 그린으로 선정하고 속눈썹을 초록빛으로 물들인 서인영의 메이크업 화보(사진 위)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에메랄드 그린에서 뻗어나온 시원스러운 민트 빛깔도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필그림은 민트색 장식이 돋보이는 '고준히 애티튜드' 라인을 출시하고 초록빛 시장에 뛰어들었다. 필그림 관계자는 "민트 색상 제품이 전체 컬러 판매량의 45%를 차지하는 등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그린은 봄의 싱그러움과 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채도가 높고 화려해 이목을 끄는 색상이기도 하다. 그린 아이템에 처음 도전한다면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골드·블랙 등 무거운 느낌의 색상과 조합해 고급스럽게 연출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흰색과 에메랄드 그린을 매치하면 발랄하고 신선한 느낌이 강조된다.

한국 케엠케 색채연구소는 최근 유행 중인 녹색 열풍에 대해 "자연에서 온 색상인 만큼 사람들의 지친 감성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밝은 미래를 연상시키는 컬러"라고 평가하면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낯설고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초록 계열 색상으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무채색이 주를 이루던 패션잡화도 올해만큼은 그린이 단연 인기다. 빈 위부터 THGT ACC 그린 에스닉 패턴 토트겸 숄더백, 커파 백팩 '에메랄드 그린', 스코노 노아 체커 컨트

지난 2월 18일 영국 런던 켄싱턴공원에서 열린 버버리 프로섬 2013 가을·겨울 패션쇼에 짙은 초록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등장한 배우 김혜선. /로이터 연합뉴스

불황에는 화려한 컬러가 본색을 드러낸다.

올봄 최악의 경제 위기로 침체된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알록달록한 '캔디 컬러'가 뷰티·패션뿐 아니라 주방·가전 등 라이프 전 분야에서 색을 밝히고 있다.

색채 전문가들은 화사한 색상이나 이미지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불황에는 적은 비용으로 개성을 나타내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서 "이처럼 색깔 아이템에 지갑을 여는 '컬러 소비'가 가속화되면서 강렬한 원색 올해 산업 전반에 트렌드 컬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불황속 '달콤한 캔디컬러' 잘 팔리네

◆핑크 립스틱·컬러 팬츠 열풍

지난겨울부터 여성들의 입술은 상큼한 핫핑크로 물들었다. 맥·슈에무라 등 주요 뷰티 브랜드들은 '캔디 임앙' '강남 핑크' 등 다양한 톤의 분홍 립스틱을 잇따라 선보이며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중이다.

블랙·블루 일색이던 바지 역시 무지개 빛깔을 입었다. 백화점 캐주얼 매장에서는 눈에 확 띄는 형광색의 팬츠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 마케팅팀 이신애 과장은 "이번 시즌에는 은은한 파스텔 톤부터 강렬한 원색까지 화려한 컬러 팬츠가 대유행"이라며 "특히 그동안 무채색 위주였던 남성 바지에도 튀는 컬러가 대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주방·식탁에도 '컬러를 입혀라'

단순 생필품으로 여겨졌던 주방용품 역시 컬러풀한 아이템이 대세다. PN풍년의 관계자는 "화려한 주방용품은 부엌을 화사하게 꾸미는 인테리어 기능은 물론 뇌를 자극해 식욕을 돋운다"며 "이제 색은 주방용품의 디자인에 멋을 더하는 것뿐 아니라 음식의 맛과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형형색색 냄비와 그릇이 인기를 끌자 이미프는 최근 컬러 주방용품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실제로 오렌지·블루 라인 등 튀는 색상의 냄비일수록 매출이 잘 나온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박지원기자 jiwon

U CITY NIGHTCLUB
U
LUXURY 30¡/40
U-CITY NIGHTCLUB
02)542-1035~6

Culture Place

◆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 ~6월 9일 / 샤롯데씨어터 / 마이클 리·박은태·윤도현·김신의·정선아 등

레미제라블 / ~5월 26일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정성화·문종원·조정은·양준모·박준면 등

그날들 / ~6월 30일 /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 / 유준상·오만석·강태을·최재웅·지창욱·오종혁 등

아이다 / ~28일 /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 / 소냐·차지연·김준현·최수형·정선아·이정열 등

형제 / 오픈런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2관 / 곽선영·홍지희·박은미·김경수·김보강·이정은 등

젊음의 행진 / ~6월 23일 /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 이정미·유주혜·이규형·김시권·박영찬·최정화 등

친정 엄마 / ~5월 19일 /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 나문희·김수미 등

러브 인 뉴욕 – 올 댓 재즈 / ~6월 23일 / 성균관대 새천년홀 / 조호균·조지훈·박송연·이소은·박성순 등

◆ 연극

유럽 블로그 / ~5월 31일 /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1관 / 김수로·채동현·강재범·성두섭 등

옥탑방 고양이 / 오픈런 / 대학로 틴틴홀 / 박은석·김형욱·송광원·염성민·박혜미 등

작업의 정석 / 오픈런 / 대학로 올레홀 / 김영빈·손승현·박정환·김효준·권은선 등

쉬어 매드니스 / 오픈런 /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2관 / 이현철·서성종·정태민·김원진 등

◆ 콘서트

크라프트베르크 / 27일 / 잠실종합운동장 서문 돔스테이지

김장훈 공존 / 27일 / 연세대학교 대강당

루시드폴 '다른 당신을' / ~28일 / 종로 반쥴

◆ 전시

싸이트 인 씬 / ~6월 3일 / 세종문화회관 전시관1

사이언스 쇼 더 바디 / 오픈런 / 용산 전쟁기념관

오래된 빛이랑 / 5월 26일 / 북서울 꿈의숲 상상톡톡미술관

/정리=김민준기자 mjkim@

<조용필 19집>

미러클 '헬로'

명료한 사운드·청량한 멜로디 귀에 쏙쏙
쇼케이스서 가사 잊어버려 '인간적 매력'

<아이언맨 3>

파워풀 '히어로'

맨몸 격투신 비중 커져…펠트로 반전몸매
영화 기대반 우려반…흥행파워 여전할 듯

조성준·유순호 기자의
talk! talk! 신작

▶ 조용필 19집 '헬로'

조성준(이하 조) = 조용필의 19집 '헬로'는 그의 음악적 뿌리가 록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조용필의 음반들 가운데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는 7집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어제 오늘 그리고' '미지의 세계' '여행을 떠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등이 수록됐던 당시와 비슷한 색깔을 띠면서도 사운드의 엄청난 진화를 과시합니다.

유순호(이하 유) = 정말 놀라운 건 7집이 발표되고 강산이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목소리는 더 카랑카랑해졌다는 것이죠. 화려한 반주와 코러스가 곁들여진 보컬은 여느 신세대 가수들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 = 수록곡 대부분은 명료한 사운드와 청량감 넘치는 멜로디가 귀에 쏙쏙 박히는 아메리칸 팝-록 장르죠.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토토와 저니, 알이오(REO) 스피드웨건 등이 이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들이고 최근에는 마룬파이브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용필의 이번 음반은 4050부터 2030세대까지 두루 시로잡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유 = 사흘 전 쇼케이스에선 지나치게 긴장이 들었던 탓인지 '바운스'의 라이브 무대 도중 가사를 까먹는 '가왕'답지 않은 실수로 인간적인 매력까지 선사했습니다. 완벽주의자 조용필은 공연과 연습을 불문하고 작은 실수라도 벌어지면 '위대한 탄생' 멤버들과 스태프를 호통과 약간의 무력(?)으로 다스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가항력'했던 시절의 과거 탓인지 어날 실수에 관계자들은 애써 웃음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와 마지막 트랙인 '걷고 싶다'와 '그리운 것은'을 강추 하고 싶네요. 록발라드 '걷고 싶다'는 드라마틱한 선을 전개기 남성적인 색채의 전환 플로봉을 보는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리운 것은'은 곡 전체에 그루브가 넘쳐 흐르는 덕분에 자미로콰이의 음악처럼 심지어(?) 흥겹기까지 합니다. 환갑을 넘긴 아티스트의 음악이라고는 믿기 힘들어요. 올해 63세인 조용필보다 세 살 많은 데이빗 보위의 신작 '더 넥스트 데이'를 얼마 전 들으면서 우리나라엔 왜 이런 노장 가수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어요.

유 = 젊어진 음악에 걸맞은 퍼포먼스도 기대해봅니다. 쇼케이스 때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모습으로 여성 팬들로 하여금 '귀요미'라는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콘서트에서는 신곡에 어울리는 세련된 헤드뱅잉이나 힙합 댄스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요.

▶ 영화 '아이언맨 3'

조 = 25일 개봉된 '아이언맨 3'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슈트 없이도 도덕적 인간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력과 두뇌를 겸비했지만 난봉꾼에 가까웠던 그가 한 여자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시골 소년과 유사 부자(父子) 관계를 맺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어쩌면 악칠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너중이 환비는 건 여전히 철없는 슈퍼 히어로의 좌충우돌 활약상이기 때문이죠.

유 = 액션 장면에선 맨몸 격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슈트를 입었다 벗었다 계속 반복하죠. 착용 방식이 훨씬 편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지만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아이언맨'이 싸우는 모습에 열광하던 이들에겐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스타크의 연인인 페퍼(기네스 팰트로)의 액션 분량을 늘렸는데요, 한식 마니아에 채식주의자로 잘 알려진 팰트로의 잘 디자인 복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팰트로의 공개하인 반전 몸매는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모 맥주 브랜드처럼 진한 뒷맛을 남깁니다.

조 = 종합해보면 3편은 '다크 나이트 라이즈'처럼 트릴로지(3부작)의 마지막이자 4편에서의 리부트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슈퍼 히어로물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이 시리즈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됩니다.

유 = 삼세번에 대한 우리 정서 때문인지 전작들에 비해 상대적인 약점이 있지만, 흥행 파워는 여전히 막강할 것 같습니다. 예매율이 90%에 육박한다니 일단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네요.

On Stage

도발적 해석 '…수퍼스타' 감성 적시는 '아름다운 것들'

노래로 진한 감동을 전하는 뮤지컬 두 편이 관객과 만난다.

26일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할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사진)'는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을 만든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쓴 곡들로 이뤄진 송스루(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뤄진 형식) 뮤지컬이다. 예수(지저스)의 마지막을 도발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돋보이는 록 오페라다.

특히 이번 공연은 천재 아티스트로 불리는 정재일이 음악감독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은다.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박은태·윤도현·김신의 등 가창력을 인정받은 스타들이 총출동해 웨버가 자신이 쓴 곡 중 최고 난이도라고 칭한 '겟세마네' 등 3~4옥타브를 넘는 명곡들을 들려준다.

24일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는 포크음악의 대모 양희은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이 막을 올렸다.

라디오 휴게 공개 방송을 배경으로 청취자들의 사연이 드라마로 재연되고 거기에 맞는 양희은의 노래가 어우러지는 형식이다. '아침 이슬' '백구' '아름다운 것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등 히트곡 20여 곡이 선보여진다.

/박진배기자 jjin427@

‘젠틀맨’ 머잖아 ‘사골맨’

싸이 빌보드 1위 위해 미국 출국…“톱5 유튜브빨 맞아요”

월드스타 싸이가 빌보드 정상 등극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싸이는 '젠틀맨'으로 빌보드 핫 100 5위라는 성적을 받아든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공항에서 그는 "5위는 네티즌 용어로 '유튜브빨'이 맞다"면서도 빌보드 순위 상승을 위한 음원 방송, 유튜브 등에서의 치밀한 전략을 일부 공개했다. '강남스타일' 당시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빌보드 정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가수 싸이가 미국 프로모션을 위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아이튠즈 순위가 내려가고 있어 다음주면 (빌보드 순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면서도 "유튜브 조회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라디오나 TV 등 언론매체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면 아이튠즈 순위의 재상승이 기대된다. 모두 다 오르는 데 2~3주 걸릴 것 같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 도착과 동시에 1개월간 집중적인 방송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프라이데이 모닝 쇼'에서 혁신상을 받는 것으로 현지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다음달 3일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열리는 NBC '투데이쇼' 공연도 잡혀 있다.

25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원정경기에 등판하는 LA 다저스의 류현진과의 만남도 계획돼 있다.

싸이는 "'젠틀맨'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굉장히 좋다. 이번에는 방어하는 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에('젠틀맨')가 민망치 않게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 기분이 좋다"며 "'사골스타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강남스타일'처럼 '젠틀맨'도 서너 달을 부르며 '사골맨'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박재범, 오초희와 ‘19금’ 러브신

신곡 '웰컴' 뮤비 공개

박재범이 신곡 '웰컴' 뮤직비디오에서 새내기 글래머 오초희와 '19금' 러브신을 합작했다.

그는 25일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 운동으로 다진 상반신을 드러내며 섹시한 매력을 발산했다. 베드신에선 오초희와 연인 사이로 변신해 끈적끈적하면서도 애틋한 느낌의 애정 연기를 선보였다.

오초희는 순품에 젖은 동안 외모와 풍만한 가슴선으로 이중적인 매력을 과시했다.

어둠은 케이블 채널 [illegible] NL 코리아'의 신주쿠로, 두 달 전 오초희가 하차할 때 박재범이 합류했다.

한편 '웰컴'은 박재범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로 재치 넘치는 가사와 몽환적인 음색, 리드미컬한 비트가 돋보이는 알앤비 장르다. /조성준기자 when@

씨엔블루 싱글 오리콘 2위

씨엔블루가 24일 일본에서 발표한 다섯 번째 싱글 '블라인드 러브'로 오리콘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첫날 3만5773장의 판매량을 기록한 이번 싱글에는 '블라인드 러브' '위드 유어 아이즈' '그리다 핀' 등 3곡이 수록됐다. '블라인드 러브' '위드 유어 아이즈'는 이종현, '그리다 핀'은 정용화의 자작곡이다.

6인 [illegible] 시기 [illegible]를 진행 중인 씨엔블루는 7월 24·25일 홋카이도 공연을 비롯해 나고야,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 등 5대 도시의 제프 공연장에서 10차례 콘서트를 개최한다.

부모님 선물 딱…'효 디너쇼 성찬' 차려졌네

어버이날맞이 이미자·심수봉·주현미·장윤정 '4인4색' 무대 마련

성인가요 '4대 여왕'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뜨거운 효심 잡기 대결을 벌이고 있다.

디너쇼 티켓이 어버이날 효도 선물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이미자·심수봉·주현미·장윤정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베테랑 가수들의 공연이 예매율 순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대선배인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는 다음달 7~8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어버이날 효 디너쇼'를 개최한다.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섬마을 선생님' 등 주옥같은 히트곡들로 70년 인생사와 부모 세대의 인생을 함께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미자 디너쇼는 관객층이 대부분 60·70대임에도 구매자 연령은 30·40대가 79%를 차지해 인증 부모를 위한 효도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2NE1의 산다라 박이 모친과 이미자 디너쇼를 관람하고 SNS에 글을 남겨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연에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일반적인 디너쇼 식사인 스테이크 대신 건강 트렌드를 감안해 떡갈비 코스가 제공된다.

심수봉은 8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심수봉 특별 디너쇼'를 마련한다. 6성급 호텔인 콘래드에서 처음 열리는 디너쇼다. 이 호텔의 총주방장인 쥐앤 피어슨이 첫 번째 만찬을 직접 준비한다.

심수봉은 우아한 분위기에 맞게 심포니 전속 오케스트라와 손잡는다. 전곡을 오케스트라에 맞춰 편곡해 차별화된 구성을 시도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때 그 사람' '사랑밖에 난 몰라' 등을 선사한다. 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피아노 연주도 들려준다.

2월 세종문화회관 단독 콘서트를 매진시켰던 주현미는 8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현미의 특별한 디너쇼' 무대에 오른다. 데뷔 30년을 넘긴 지금도 변함없이 청량한 목소리와 화사한 미소를 지닌 그는 화려한 무대 구성과 박진감 있는 연출로 특유의 팔색조 매력을 전한다.

장윤정은 8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어버이날 효 디너쇼'를 연다. 결혼 발표 후 첫 무대로,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장윤정은 "부모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다. 단순한 디너쇼가 아닌 효도잔치가 될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벤트로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탄생 200주년 베르디 걸작부터 창작까지

오페라 페스티벌 열린다

예술의전당 내달 4일 개막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다음달 4일부터 6월 9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국립오페라단과 4개 민간 오페라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 '가극의 왕'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베르디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오페라단과 서울오페라앙상블, 노블아트오페라단이 각각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5월 10~12일), '운명의 힘'(5월 17~19일), '리골레토'(5월 24~26일)를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린다.

고려오페라단은 창작 오페라 '손양원'(5월 31일~6월 2일)을, 국립오페라단은 '처용설화'를 재해석한 '처용'(6월 8~9일)을 마지막 무대로 선보인다.

페스티벌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무료 공연도 연다.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모은 갈라 공연부터 오페라 해설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마련한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koreaoperafestival.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580-1300

/김민준기자 mjkim@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오페라단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홍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4 What are these? 사물에 대해 말하기(복수)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문으로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s it time to begin the conference?
B Yes, it is. 여기 당신의 책들이 있어요.
A These books aren't mine.
B Then 이것들은 누구의 책들이죠?
A 이것들은 제 것이고, 저것들이 당신 거예요.
B Yes. That's right.

정답 Here are your books. / Whose books are these? / These are mine, and those are yours.

생생영어팁

▶ They aren't mine. VS. They're not mine.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vs. 그것들은 제 것이 진짜 아니라니까요.

위의 두 문장은 모두 '그것들은 ~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ren't는 be동사 are와 not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They와 are를 합쳐 They're로 줄이고, 뒤에 not을 따로 붙여 They're not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개는 큰 차이 없이 쓰이지만 영어에서 단어를 따로 떼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They aren't라고 할 때보다 They're not이라고 할 때 not을 더 강조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에서 They're not이라고 말하는 거죠.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This mobile phone is an updated version of the _______ model.
(A) origin (B) origins
(C) original (D) originally

02 Sleeping-car passengers will be provided _______ the bedding they need for the journey.
(A) with (B) for
(C) to (D) of

01. 이 휴대전화는 원래 모델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해설 명사 model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형용사인 (C) original(원래의)을 쓴다.
어휘 origin 기원, 근원 originally 원래
정답 (C) original

02 침대칸 승객들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침구가 제공될 것이다.
해설 provide A with B의 형태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 이 문장은 수동태가 되면서 A 자리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 Sleeping-car passengers로 문장 맨 앞에 나가 있는 상태이므로 전치사 (A) with를 써야 한다.
어휘 sleeping-car 침대칸(차) bedding 침구 journey 여행
정답 (A) with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질문 유형 파악하기

▪ 일정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I was told that it will finish at 5 p.m. Is this right?
A No, it isn't. It will finish at 5:30 p.m.

Q I heard that we will have lunch somewhere outside, right?
A No, actually. We will have lunch in the main cafeteria.

▪ 빠진 정보를 묻는 경우

Q I was told that the CEO will give an opening speech, right?
A Yes. At 9 a.m., Jacob Gray, the chairperson, will give an opening speech.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됐습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걸인까지 치료했던 제중원

권기봉의 **도시산책**

서울 계동에 있는 현대사옥 앞을 지날 때면 생각나는 게 있다. 만인의 의료 평등을 상징하던 병원이 한때 그곳에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1885년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말이다.

수술실과 진찰실, 화학실 등을 갖추고 있던 제중원은 이전의 의료기관들과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제중원에서는 궁중의 귀인이나 양반은 물론 일반 백성에 걸인, 그리고 나병 환자들까지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때문일까? 제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의 수가 첫 1년 동안만 1만여 명에 달했다. 많을 때에는 하루에 260명이 넘는 환자들이 찾기도 했다고 한다. 설립 이듬해에 자금의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자리(사진)로 시설을 확대 이전한 이유 중 하나다.

그즈음부터는 단순히 진료나 수술만 한 것이 아니라 의학 교육도 병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의과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중원 의학당'이 바로 그것이다. 약 조제법을 비롯해 의료기구 사용법과 환자 간호법, 해부학 등은 물론 물리와 화학, 영어와 같은 기초 학문 교육을 실시했다. 첫해 입학생은 16명의 조선 청년들이었다.

그렇다고 제중원의 미래가 밝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1890년 제중원 의학당의 의학 교육이 중단된 것이다.

물론 제중원이 조선시대에 근대식 의료 기술을 도입한 최초의 병원은 아니다. 제중원 설립 훨씬 이전인 1877년에 이미 부산에는 일본인 병원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병원은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의 평등'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 땅에 '만인을 위한 의료기관' 제중원이 들어선 지 128년… 과연 지금은 초창기가 딛때 꾀우던 그 시절보다 진보한 것일까. 대답이 쉽지 않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친구처럼 지내는데 결혼 괜찮나 좋지는 많지만 궁합상태는 무난

효윤이 여자 81년 7월 15일 음력
남자 81년 8월 23일 음력

Q 안녕하세요. 선생님! 2년 전에 한 번 올렸었는데 2014년에 좋은운이 있다고 하셔서 궁합 질문이 다시 올립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결혼해도 좋을지 해서요. 그때처럼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좋을지 궁합을 부탁드립니다.

A 궁합이 좋으려면 사주들자 여덟 글자의 천간(天干)에서 남자가 여자를 생해주거나 합을 이뤄야 하며 남녀 자리에서 배우자와 합을 이뤄야 합니다. 조상 자리인 부모궁에서도 흉살이나 원진살(怨嗔煞)을 지녀지면 막상 헤어지지도 못하고 괴리가 사는 불우함이 없어야 편안 문화나 가정, 습성에 문제가 없어서 원만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은 좋은 궁합이라기보다 원만한 궁합이니 최종 결정을 하십시오. 2014년은 좋좋되는 운세라 뛰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도 다분히 선을 귀한의 길성을 서로 갖고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동반자로의 결혼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 동업 고민 성공보다 실패 더 많은점 명심

hymin 남자 74년 2월 7일 양력

Q 메트로신문의 김상회 '사주 속으로'에서 깊은 사연들을 보며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위로가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될까요. 주위에서 동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해서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논밭을 가는 소 뫼 같은 품상으로 거짓말이 없이 순수하군요. 제품가에서도 과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이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대부분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에 동업이 깨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주 지장간(地藏干)에 있는 신금(辛金)의 金기 작용으로 사람을 쉽게 너무 쉽게 믿거나 업무 여유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양면이 강합니다. 자신의 어익을 먼저 취하지 못하면서 생대의 불공정한 행동을 저어하는 면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2013년 시작해도 늦고 2014년 실행해도 그해 7월 이후 부채가 쌓게 되는 운세로 기니 참고하십시오. 42세 후 운세가 흥상을 때는 뭐든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듣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4/26 金 일출시각 05:43 일몰시각 19:1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지역	기온
서울	6/16
청주	5/17
대전	5/16
전주	5/18
광주	6/18
제주	10/14
강릉	5/10
울릉도	7/11
대구	8/18
포항	9/19
울산	7/20
부산	9/19

봄나들이 도시락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1회분씩 소량으로 준비해 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자동차 트렁크 같은 곳보다 그늘지고 서늘한 곳이 뒤이 상하지 않습니다.

- 전신지수
- 복실환기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사물학종합 www.yuhs.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1	
			9	7	6	4		
	5						2	
	1	7				6		
	3			8			5	
		4				7	3	
	8						4	
		1	6	9	8			
	7		1	4				

	9				2			
8		7	3				4	5
			1	7				
7	6					5		3
		1		9		4		
4		2					7	6
				1	5			
5	1				3	2		7
			8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보누스
권사 스도쿠 플래티넘 (피터몰 퍼즐 기름)

신점[神占] 운세

4월 26일 (음 3월 17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6541

쥐: **48년생** 가족의 힘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60년생** 구설수 있으니 언행 조심하라. **72년생** 직장인은 중책을 맡는다. **84년생** 운세가 좋았으니 결어온 사랑이면 대시하라.

소: **49년생** 다시 앞두고선 생각이 많아지는 때~ **61년생**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낀다. **73년생** 꽃길이 열어진다고 해도 뒷은 하라. **85년생** 제 일은 잘 수확 하다 최선이다.

호랑이: **50년생** 옛 동료와 즐겁게 회포 푼다. **62년생**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이 유리~ **74년생** 해묵은 숙제를 한 것처럼 개운하다. **86년생** 돈보단 비전을 택하라.

토끼: **51년생** 집안일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63년생** 투자는 재검토 하는 것이 좋다. **75년생** 같을 좋은 친구 때문에 우울~ **87년생**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용: **52년생** 처음은 어려워도 결국은 좋다. **64년생** 조직의 축기사로 나서면 박수가 짝짝~ **76년생**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88년생** 프러포즈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어라.

뱀: **53년생** 건강 체크에 신경 써라. **65년생** 멀리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77년생**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것. **89년생** 쉽게 얻으면 쉽게 나가는 법이다.

말: **42년생** 삶에 활력소가 톡 솟아 생긴다. **54년생** 주변의 충고 들으면 만사형통~ **66년생** 뛰는 만들다 보면 고물은 들기 마련이다. **78년생** 변화보단 안전을 선택하라.

양: **43년생** 잦거리 외출은 생기라. **55년생** 즐으로 즐지나 뒤로는 남는 격이다. **67년생** 혈상과 관련된 좋은 자리이 될 듯. **79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드디어 온다.

원숭이: **44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온다. **56년생** 배우자와 죽이 잘 맞아 즐거구나. **68년생** 고기가 큰 강물을 만난 격이다. **80년생** 좋은 흐로 조직의 시선 한몸에~

닭: **45년생** 돌복하고 싶으면 마음을 비워라. **57년생** 문서 잘 으면 나중에 곤을 친다. **69년생** 실현성 없는 계획은 포기하라. **81년생** 최신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개: **46년생** 이기저기 갈 곳이 많아 바쁘다. **58년생** 이우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에티켓은 지켜라. **70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82년생** 사랑을 표현할 땐 과감하여 효과~

돼지: **47년생** 대접받으려면 몸을 에꺼라. **59년생** 속내는 털어놓으면 편안하다. **71년생** 상황이 머리워도 흥수는 금물~ **83년생** 한 가지 일에 올인해야 목적 이룬다.

What's Up

이화의료원 대표단은 18~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선진 의료 기술을 전파했다. 학남선(사진 오른쪽) 이대여성암병원장과 강경희 연해주 한인회 회장이 진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사인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왼쪽) 회장은 23일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 캠퍼스에서 서울대·조지워싱턴대학과 한국 전통 온돌 난방 연구기금 100만 달러 기부금 약정식 행사를 가졌다. 100만 달러는 서울대·조지워싱턴대 간 학생, 교수진 교환과 한국식 온돌 기술에 대한 두 대학의 연구 지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한국생산성본부연구소가 23일 네오퓨처리더스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조기업의 인사 전략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 제조기업에게 고용 유연성 확보,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 혁신 의지 강화 등과 같은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폴리텍 I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는 22일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 산학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정용천 학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전시 관련 사업 분야로의 학생 취업에 큰 통로를 개척했으며 해당 학과인 산업디자인과가 미래 신성장 동력 학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품막걸리·라이스젤리… 맛의 향연

2013 대한민국 식품대전 다음달 14~17일 킨텍스

맛있는 음식과 풍부한 볼거리로 가득한 '2013 대한민국 식품대전(KOREA FOOD SHOW 2013)'이 다음달 14~1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5회를 맞는 식품대전은 'K-푸드,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한국 식품 산업의 발전상을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자연식품관에서는 맛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품에서부터 클린푸드, 슈퍼푸드 등 건강식품, 어린이 안전먹을거리 등 안전 정책도 만날 수 있다. 전통식품관에서는 라이스젤리, 거품막걸리 등 새롭게 해석된 전통 음식을 선보인다. 문화식품관은 몸을 치유하는 건강음식 및 약선음식 등을 비롯해 마음을 치유하는 소셜다이닝, 공정무역 등 새로운 식문화를 보여준다. 미래식품관은 새롭게 도약중인 창조적 농촌의 모습, 식품과 과학기술의 융합 등 미래 식품 산업을 한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013 대한민국 식품대전에는 가족 단위나 젊은 연령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우리술 마주제, 한식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부대 이벤트가 마련돼 관람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문의 koreafoodshow.com

순정 부품과 함께 친환경 운전 하세요

현대모비스 대국민 운동

현대모비스가 친환경 운전 습관 정착을 위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친환경 운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앞으로 7개월간 전국적으로 펼친다.

현대모비스는 부산 해운대 자동차검사소에서 발대식을 하고 친환경 운전의 중요성과 운전법, 차량 관리 요령 등을 운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순정 부품과 함께하는 친환경 운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의 폭넓은 보급에 발맞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한 활발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 캠페인은 전국 교통안전공단 산하 110개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소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에 이곳을 방문한 운전자들은 친환경 운전법이 소개된 홍보 손수건과 친환경 차계부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 120개소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친환경 운전 무료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엄마·아빠랑 함께 오면 두자녀 뷔페 무료

스탠포드호텔 레스토랑 다음달 31일까지 이벤트

스탠포드 호텔 레스토랑 카페 스탠포드가 가정의 달을 맞이 다음달 31일까지 어린이 무료 뷔페를 선보인다.

주중·주말 성인 1인당 1명의 어린이엔 12세 이하에게 무료 뷔페를 제공한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로 인해 식사 금액이 가계에 부담스러운 달이기에 스탠포드 호텔의 어린이 무료 뷔페 이벤트는 어린이 초발 식사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인 1명당 어린이 1명이 무료이기 때문에 4인 가족 방문 시 초등학생까지의 자녀가 2명이 있다면 2명 모두 무료로 식사가 가능하다. 예약 문의 stanfordseoul.com

쿠폰으로 빠니니 구매시 핫아메리카노 무료 증정

던킨도너츠가 30일까지 쿠폰을 활용해 빠니니를 구매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S)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무료 쿠폰은 네이버 쿠폰과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쿠폰(coupon.naver.com)에서는 무료 쿠폰으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빠니니 모바일 쿠폰 구매 후 무료쿠폰 형으로 받을 수 있다. 다운받은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은 매장에서 빠니니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후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퍼펙트 기프트' 클릭하면 선물의 달 5월 걱정 끝!

롯데닷컴이 5월 선물의 달을 앞두고 '퍼펙트 기프트'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2일까지는 다양한 어린이날 선물 아이템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멋진 엄마, 아빠 되는 법!' 기획전, 8일까지는 어버이날 부모님을 위한 선물들을 모아 놓은 '센스 있는 부모님 선물로, 효친에 일인자가 되어 보자' 기획전, 13일까지는 은사님께 드릴 감사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선생님 선물, 그만하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기획전 등으로 구성된다.

What's Cool

휴롬웰케어코리아의 모기 살충제 11년 연속 1위 브랜드인 '홈키파'에서 신제품 '홈매트 플럭 알파'를 출시했다. 홈키파 플럭 알파는 기존 매트 제품이 제공하는 강력한 했충력과 리퀴드 제품의 지속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카트리지 타입으로 전용 기기 본체에 교체용 카트리지를 끼워주면 30일간(8시간 사용 기준) 사용 가능하다.

시만텍의 개인용 브랜드 노턴이 모바일 장치에 담긴 내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를 론칭하고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 스토어 내 이벤트 페이지(nortonstore.kr/info/promo/nms/index.html)를 통해 노턴 모바일 시큐리티를 구매하면 선착순 11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실용 항공사 진에어는 김포~제주 노선의 만성적인 좌석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기간 중 이 노선에 대한 공급을 확대 편성한다. 이를 위해 B737-800 항공기를 추가 투입한다. 하계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26일까지 주간 평균 14편, 3024석을 늘려 하계 기간 종료 시까지 총 425편 8만325석의 공급을 확대한다.

피트니스의 새로운 트렌드 AMC은 20~21일 양일간 아디다스 '확실한 '콘셉트로 행사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피트니스 지도자들에게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 강력, 일반인들에게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 세계로의 발판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13년도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 사업' 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전체 특성화고 고등학교 중 13.6%(97개교)에 해당하는 식품조리 분야 학교 졸업생들의 잠재적인 교육 수요에 대응해 취업과 진학을 할게 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4일 지렁이를 활용해 음식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맛! 지렁이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쏜다!'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여자대학교 에코캠퍼스 추진사업단은 지난 2011년 9월 사무처 시설관리팀과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폐기물 자원화 순환 시스템을 공동으로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 19개월 동안 교내에서 발생한 음식 폐기물 4431.5kg을 과 낙엽(1335kg)을 지렁이가 대신 처리했으며 절감한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했다.

metrosports

장원삼 10K '삼성 3연승'

옥스프링 1698일만에 감격승

날미다 행복한 턱돌이 25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넥센과 두산의 경기에 앞서 넥센의 마스코트 턱돌이가 영화배우 도지원을 안아 시구 장소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의 장원삼이 2년 연속 다승왕을 향해 순항하며 팀을 3연승으로 이끌었다.

2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구르트 세븐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장원삼은 선발로 나와 7⅔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솎아내고 1점만 주는 빼어난 투구로 2-1 승리를 견인했다. 삼성의 수호신 오승환은 9회 1사 만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장원삼은 올 시즌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펼치며 지난해 17승 기록 경신을 노리게 됐다.

1-2로 끌려가던 LG가 9회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선두 박용택이 깨끗한 중전 안타로 나가자 보내기 번트가 이어졌다. 손주인이 때린 타구는 3루수 앞으로 느리게 굴러 내야 안타가 됐고, 정주현이 투수와 유격수 사이를 느리게 흐르는 내야 안타로 1사 만루 기회를 이어갔다.

통산 세이브 1위를 달리는 오승환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 최영진을 몸쪽 낮은 직구로 삼진으로 잡고 한 숨을 돌린 그는 이대형에게 볼 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복판에 높은 돌직구를 꽂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경기를 끝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롯데는 선발 크리스 옥스프링의 호투를 발판 삼아 SK를 6-0으로 제압하고 2연승을 달렸다.

5년 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온 롯데 선발 옥스프링은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SK 타선을 꽁꽁 묶고 3패 후 첫 승을 신고했다. 옥스프링은 2008년 8월 31일 한국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이래 4년 7개월 24일 만에 다시 승리를 보탰다.

선두 KIA는 19안타를 몰아쳐 최하위 NC를 11-4로 대파했다.

목동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넥센의 경기는 10회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이 6-3으로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설욕했다. /장순호기자

추신수 나이스 플레이! 추신수가 25일 열린 시카고 컵스전에서 4회 초 수비 때 앤서니 리조의 홈런성 타구를 몸으로 잡아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홈런 타구 걷어내다

추신수 멀티히트에 수비까지

'톱두 기계'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시즌 12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34로 늘렸다.

추신수는 25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때리고 타율을 0.372로 끌어올렸다. 출루율은 0.534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린 가운데 안타도 31개로 현재까지 1위에 올라있다.

추신수는 1회부터 상대 선발 제프 사마르자의 시속 151㎞짜리 두심 패스트볼을 때려 안타를 날렸다. 3회 삼진, 5회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7회 중전 안타를 추가했다.

4회 초 수비에서도 앤서니 리조의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를 달려가서 잡아내며 홈 팬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신시내티는 토드 프레이저의 솔로포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김민준기자

이시영 편파판정에 태극마크 획득?

상대 선수측 "심했다" 주장 | 심판 "오픈블로 많아"

이시영(오른쪽)과 김다솜이 24일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48㎏급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

여자 복싱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배우 이시영(31)에게 패배한 김다솜(19)의 소속 수원태풍무에타이체육관이 "편파 판정으로 태극마크를 빼앗겼다"며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락환 관장은 25일 "오픈블로(손바닥 부위로 치는 것) 경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정확히 펀치가 들어갔다. 유효타도 더 많이 때렸는데 판정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다솜은 전날 충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여자 48㎏급 결승에서 이시영에게 20-22 판정으로 패배했다. 2라운드까지는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3라운드부터 판정 점수에서 밀리며 태극마크 획득에 실패했다.

최 관장은 "상대 선수가 유명 배우여서 판정이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너무 지우쳤다. 편파 판정을 예상해 KO로 이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김다솜이 너무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다솜 측이 복싱연맹에 항의를 하더라도 경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경기 후 30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기를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심판들이 이시영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경기 주심을 봤던 조종득씨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인파이팅을 한 김다솜 선수가 이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추어 복싱에서 공격성은 점수를 주는 기준이 아니다"며 "김다솜은 오픈블로가 많았다. 3번째 주의에서 경고를 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4번째에서야 경고를 줬다"며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레반도프스키 4골 '원맨쇼'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4-1 완파

폴란드 출신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25·도르트문트)가 혼자 4골을 넣는 '원맨쇼'를 펼치며 세계 축구 팬에 이름을 알렸다.

레반도프스키는 25일 독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전반 7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3골을 넣는 골 퍼레이드를 펼치며 팀의 4-1 완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3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레버쿠젠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5골을 넣어 최다 기록을 세웠지만 역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4골을 터트린 것은 레반도프스키가 유일하다.

이날 4골을 추가한 레반도프스키는 10골을 쌓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1골)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랐다. 메시(8골), 토마스 뮐러(7골·바이에른 뮌헨)가 3, 4위로 뒤를 잇고 있다.

호날두는 이날 1골을 추가했지만 레반도프스키의 원활약과 소속 클럽의 완패로 초라해졌다. /김민준기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도르트문트)가 25일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4번째 골을 넣고 손가락 4개를 펴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포츠브리핑

■수아레스 10경기 출전정지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팔을 깨물어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6·리버풀·사진)가 1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수아레스는 22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첼시전에서 후반 20분 자신을 밀착 마크하던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의 팔을 물어 뜯는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수아레스와 행동을 잘 보지 못한 심판은 구두로 주의를 줬지만 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팬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25일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3경기 출전정지 징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수아레스의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다저스 연장 10회 만루포 허용

LA 다저스가 25일 열린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전에서 연장 10회말 만루 홈런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등판한 다저스 선발 테드 릴리는 5이닝 동안 6피안타 2볼넷 1실점으로 메츠 타선을 틀어막았지만 불펜 투수들이 난조를 보여 9회말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3-3으로 맞선 10회말 1사 만루에서 조디니 발데스핀에게 만루포를 내줘 3-7로 졌다.

■토트넘 손흥민 영입 포기

토트넘이 함부르크 제결사 손흥민(21)의 영입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미국 매체 월드스포츠는 25일 "토트넘이 한국 국가대표 손흥민을 스쿼드에 포함하려던 관심을 접었다"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지만 전술 시스템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선수를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외에 어스날,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도르트문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야구 전적 25일

■잠실

팀	1-3	4-6	7-9	R
삼성	010	000	100	2
L G	000	010	000	1

승=장원삼(2승 1패) △세=오승환(1승 4세이브) △패=주키치(1승2패)

■목동 (연장 10회)

팀	1-3	4-6	7-9	10	R
두산	102	000	000	3	6
S K	100	200	000	0	3

[illegible]

■사직

팀	1-3	4-6	7-9	R
S K	000	000	000	0
롯데	210	001	02X	6

승=옥스프링(1승 3패) 패=[illegible]

■마산

팀	1-3	4-6	7-9	R
KIA	042	000	203	11
N C	010	002	100	4

[illegible]

북유럽의 빛깔로 가득한, 가장 요 네스뵈다운 스릴러!
냉혹하고 대담하다! 해리 홀레 시리즈의 붉은 심장과도 같은 소설!